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3월 17일
제1992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요한 12,27-28)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

사순 제5주일 (나해)

제 1 독서 예레 31,31-34 | 나는 새 계약을 맺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화답송 시편 51(50)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제 2 독서 히브 5,7-9 |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복음 요한 12,20-33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0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27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29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30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31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32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33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복음 묵상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랐을 소망을, 오늘 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동문서답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매우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알고 싶다면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건너가는 참된 파스카를 이해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뒤 다시 열매를 맺듯,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파스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당신을 뵙게 하여 달라는 이방인들의 요청에, ‘땅에서 올려진 십자가’야말로 가장 정확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 그 자체로 억압이고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지요. 그러나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 그 고통스러운 계획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죽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완전한 사랑의 장소요 그 약속(계약)의 장소인 것입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말씀과 성화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태어난 16세기 최고의 신비주의 화가다. 그는 신약성경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배경으로 그린 그의 주목할 만한 작품 중의 하나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입을 다문 채 간절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작품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주님, 보십시오.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신과 딱 어울립니다.
사실 당신에겐 십자가가 필요없는데

당신은 나서부터 죽기까지
이 세상의 죄의 멍에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안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걸음을 옮기십시오.
힘이 들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골고타 언덕까지 안고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아무 말씀도 없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싸울 때가 있고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주님, 저 같으면 십자가의 운명과 싸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큰일이니까요.
십자가를 한번 지고 나면 내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니까요.

주님,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자코 받아들이지 않는 한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시면
당신처럼 말없이 안고 가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엘 그레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과 안고 간다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짊어져야 할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를 안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왕 짊어져야 할 고통이라면 짐으로 생각하고 투덜거리면서 힘들게 짊어지는 것보다는 엘 그레코가 그린 예수님처럼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어떨까?

십자가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애처롭지만 평온하고 십자가를 감싸 안은 그분의 두 손과 가지관을 쓴 그분의 얼굴엔 광채마저 맴돈다. 왜 이 그림이 짙은 어둠이 빛의 시작이라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어둔 밤’에 잘 어울리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손용환 신부, 성경 미술관>

전문 보기: <https://blog.naver.com/sonyh252/220218218771>

통회 기도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본당 판공성사 : 3월 19일(화)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 9시

1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 받습니다.

본당 할당액	본당 세대수 / 약정 세대수(비율)	현재 약정액
\$195,000	2,405 / 325 세대(14%)	\$ 157,970

-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본당 게시판의 **교구 본당 BLA 현황**을 꼭 봐주세요.

2 The Light is On for You

- <https://thelightison.org/>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8시까지 성체 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3 부활 합동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 3월 19일(화) 오후 2시 - 5시, 저녁 7시 미사 후 - 9시
- 성사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 판공성사를 위해 외부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성사를 드립니다.
- 학생들을 위한 영어 고해성사도 가능합니다.

4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3시 (본당)
-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참석 필수)
- 문의 : 김국 스테파노 (703) 304-2129

5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B-3,4)

6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A-1,2,3)

7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3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8 CYO/대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소개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3:30 (A-1,2)
- 커리어 주제 : Nursing
- 대상 : CYO 고등학생, 대학생, CCD 중학생
- 주제 발표자 : 서희경 마리아 (주일학교 교사)

9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3월 22일(금) 오후 8시 (A-1,2,3)

10 3월 24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 (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 (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 회의

11 2024 봄학기 가톨릭 어버이 성서모임 안내

- 봄학기 어버이 성서모임에서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안내 : bit.ly/cblm2024S
- 문의 : 장지혜 로사 (703) 615-8299

12 하상 성인학교 각 과목별 소개

- 주일 10시 미사 중 공지사항 전에 교우분들께 하상 성인학교 과목별 소개를 드립니다.
- 3월 17일(일) : 생활 영어 과목 소개
- 성주간은 하상 성인학교 휴강합니다.
(휴강일 : 3월 26일(화), 3월 29일(금))

13 세족례 신청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때 거행되는 세족례를 신청받습니다.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으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신청해 주세요.

14 성주간을 거룩하게 지내세요

- 성주간(3월 25일 - 30일) 동안 체육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성유 축성 미사 : 3월 26일(화) 오전 11시
(All Saints Parish in Manassas)

| 주님 수난 성 목요일 |

밤샘 성체조배 안내

- 성 목요일(3월 28일) 주님 만찬 미사 후부터 성 금요일(3월 29일) 오후 7시까지 성체조배가 이어집니다.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 성체조배는 개별 묵상으로 진행됩니다.
- 성체조배 시 매일미사 책(p 204)을 참조하세요.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3월 28일 성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밤샘 성체조배 - 29일(금) 오후 7시 (유아실)
3월 29일 성 금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예루살렘 성지 복구 헌금)
3월 30일 성 토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스카 성야 미사 오후 8시 (주님 부활 감사헌금)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8시, 10시 미사 주일학교 미사 : 10시, 친교실 오후 5시 청년 미사는 쉽니다.

40 주님 수난 일간의 여정

-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에는 9시 25분에 있습니다.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서행해 주시고, 주차 차량 불빛이 주먹가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교중미사 예불봉헌

03/17 이번 주	센터빌 2구역
03/24 다음 주	센터빌 3구역

성당 청소

03/17 이번 주	프린스 윌리엄, 우드브릿지
03/24 다음 주	센터빌 1, 4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3월 10일(사순 제4주일)

봉헌금	\$ 6,987.00
교무금	\$ 8,820.00
교무금(신용카드)	\$ 4,610.00
감사 헌금	\$ 730.00
2차 헌금	\$ 2,939.00
온라인 봉헌	\$ 2,425.00
합계	\$ 26,511.00

버지니아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3월 21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3월 22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3월 24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16권] '요한 복음의 수난기'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